

조선왕조 관찬사서 《고려사》에 수록된 일본원정사

쑤웨이구어

(난카이대학교 역사학원, 중국 티엔진, 300350)

(원문: 중국어 번역: 이금화)

【개요】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에 편년체 《고려사》를 편찬하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세종시기에 왕조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고려사》를 기전체로 바꿔 편찬했으며 총 139권으로 구성되었다. 《고려사》에 실린 일본원정은 고려의 자주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원나라와의 지혜로운 교섭, 정벌을 위해 고려가 제공한 군량, 인력 등을 자세하게 수록했다. 아울러 고려를 배신하고 원나라에 귀화한 고려인은 “반인(反人)”으로 간주하고 《반역전》에 수록했다. 이는 종번(宗藩) 체제하에서 자주성을 위한 고려의 노력을 보여준다. 《충렬왕세가》와 《김방경전》에 수록된 일본원정사에서는 조선 장병들이 정벌 승리의 핵심이 되었으며 원나라 장군의 거만함과 불통 및 “태풍”을 정벌 실패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원사(元史)》와 일본 사서와 대조해보면 《고려사》에 수록된 일본원정사는 매우 편파적이다. 동아시아 3국의 역사 사건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1 개 국가의 역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며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으로 진실된 역사를 밝혀야 한다.

키워드 : 《고려사》, 일본원정, 쿠빌라이, 충렬왕, 홍다구, 김방경, 《반역전》, 역사서술

지원(至元) 11 년(1274)과 지원 18 년(1281), 쿠빌라이는 2 차례 걸쳐 일본 정벌을 단행했다. 이는 동아시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유명한 사건이다. 원나라의 종속국이었던 고려는 일본 침략의 핵심 요원이었으며 고려는 정벌을 위한 함선, 군용 물자 등을 제공해야 했다. 따라서 고려군 역시 원나라와 함께 일본 정벌에 나섰다. 조선왕조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에 수록된 내용은 일본원정에서의 고려의 포지션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벌에 대한 고려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고려사》에 수록된 일본원정사는 주로 《원종세가》, 《충렬왕세가》, 《병지》, 《김방경전》 등에 수록되었다. 내용이 분산적이긴 하나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는 정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또 정벌 과정에서의 고려와 원나라와의 교섭을 통해 종번체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조선왕조의 《고려사》 편찬 의도와 경위

1392 년,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후, 왕조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그는 “권지국사”의 명분으로 한상질(韓尙質)을 명나라에 보내 “화녕(和寧)”,

“조선(朝鮮)”으로 국호를 신청했으며 명나라와의 중번관계를 적극 추진했다.

명태조 주원장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사했으며 이성계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기자(箕子)가 주무왕의 책봉을 받았던 것처럼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음으로써 종주국의 인정을 통해 정통성을 확립했다.^① 아울러 건국 초의 급선무로, 이성계는 고려사 편찬을 서둘렀으며 역사를 통해 신 왕조를 합법화하고자 했다. 한국 학자들에 따르면 “고려시기의 역사를 통해 고려왕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향후 통치 방향을 확립했다.”^② 상술한 배경속에서 조선왕조는 고려사 편찬을 진행했다.

편찬 초기에는 편년체 위주로 했으며 태조 4년(1395), 이성계는 정도전 등에게 고려실록 등 역사자료에 근거해 편년체 《고려국사》 편찬을 명했으며 총 37 권으로 되었다. 본 사서는 이미 실전(失傳)되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에 각 왕의 《실록》과 검교 시중(檢校侍中) 문인공(文仁公) 민지(閔漬)의 《강목(綱目)》과 시중(侍中) 문충공(文忠公) 이제현(李齊賢)의 《사략(史略)》과 시중(侍中) 문정공(文靖公) 이색(李穡)의 《금경록(金鏡錄)》을 채집하여 모아서 편집하여, 좌씨(左氏)의 편년체(編年體)에 모방하여 3년 만에 37 권이 성취되었으나, 살펴보건대, 그 역사가 잘못된 것이 꽤 많았으니 범례(凡例) 같은 데에 있어 원종(元宗) 이상은 일이 많이 참람되었다. 하여 간간이 추후로 개정한 것이 있었다. (采摭各朝实录, 及檢校侍中文仁公閔漬《綱目》、侍中文忠公李齊賢《史略》、侍中文靖公李穡《金鏡錄》, 汇而辑之. 仿左氏编年之体, 三年而成, 为卷三十有七. 顾其书, 颇有舛误. 至于凡例, 以元宗以上, 事多僭拟, 往往有所追改者)”^③ 본 사서는 단시일내에 완성되긴 했으나 참고 자료가 한정적이고 특히 이성계에 관한 내용이 부실해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본 사서의 다수 내용은 《고려사절요》에 수록되었으며^④ 향후 고려사 편찬에 기반을 마련했다.

태종 14년(1414), 태종은 춘추관사(春秋館事) 하륜(河訖), 변계량(卞季良) 등에게 《고려국사》개수를 명하였으나 2년 뒤 하륜이 사망하자 중단되었다. 세종 1년(1419)에 개수를 명하여 세종 3년(1421)에 완성하여 바쳤으나 세종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세종 5년(1423)에 변계량, 유관(柳觀), 윤회(尹淮) 등에게 개찬을 명해 이듬해에 《수교고려사(校讎高麗史)》를 만들었으나 의견 차이로 인해 발간되지 못했다. 세종 13년(1431), 세종은 춘추관사 신개(申概), 권제(權躋) 등에게 고려사장편을 개수할 것을 명하였으며 다양한 고려 역사 자료를 참고했다. 세종 24년(1442) 8월에 《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이 완성되었다. 이 책은 세종 30년(1448)에 일단 인쇄되었으나 편찬자의 요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포가 중지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고려사》와

① 진상승 : 《명나라 사건에 대한 조선왕조의 정관》, 《제 3 회 한국전통문화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 지난(濟南) : 산둥대학교출판사, 1999 년, 제 924 페이지

② (한)박인호 : 《한국사학사(學史)》, 전영, 김금자, 정경일 번역, 홍콩아주출판사, 2012 년, 제 55 페이지

③ 《동문선(東文選)》 권 93 《진고려사서문》, 서울 : 경희대학교출판사, 1968 년

④ (한)박인호 : 《한국사학사(學史)》, 제 55 페이지

《고려사절요》의 편찬을 위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했다.^①

조선왕조는 건국 후 몇 십년 동안 고려사 편찬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만족할 만한 사서는 만들지 못했다. 세종 31년(1449)에 김종서(金宗瑞), 정인지 등은 《고려사》를 다시 쓰라는 명을 받고 편년체를 기전체로 바꿔 편찬했다. 《진고려사전(進高麗史箋)》에 따르면 “그 범례(凡例)는 모두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본받았으며, 대의(大義)에 있어서는 모조리 성재(聖裁)에 품신(稟申)하였습니다. 본기(本紀)를 피하고 세가(世家)로 한 것은 명분(名分)의 중함을 보인 것이요. (凡例皆法于遷史, 大義悉稟于聖裁。避本紀為世家, 所以示名分之重。)”^② 편년체는 왕조의 정통성 확립에 부적절하므로 태조 건국 초부터 사서를 편찬하기 시작해 역대 왕에 걸쳐 몇 부나 만들었지만 조선 왕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기전체로 개찬할 수 밖에 없었다. “기전체는 편년에보다 기존 역사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구조에 대한 이해 등 면에서의 정점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고려시기 역사를 편찬하려는 조선 통치자들의 의도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③ 문종 1년(1451) 8월에 최종 완성되었으며 총 139권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목록(目錄) 2권,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열전(列傳) 50권이다. 그 뒤, 김종서는 기전체 《고려사》를 토대로 편년체를 개찬했으며 이듬해 2월에 《고려사절요》 총 35권을 만들었다. 두 사서는 전대 왕조의 역사 편찬을 통해 왕조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조선 통치자들의 목적을 실현했다.

《고려사》에는 “세가”로 왕의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명분의 중요함을 보였으나 송, 원 등 중국 황제의 연호는 사용하지 않고 고려왕의 재위 기간의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고려왕조의 상대적 독립성을 보여주었다. 사실상, 고려 건국 이후, 오대, 송, 요, 금나라 황제의 연호를 사용했다. 고려 원종부터는 몽골 연호를, 충렬왕부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원나라 연호를 사용했다. 중원왕조와의 교섭과정에서 고려를 신복(臣服)케 한 왕조는 오로지 송나라 뿐이었으나 양국의 중변관계 유지시간은 가장 짧았다. 그 뒤로 중주국은 요, 금, 원나라로 바뀌었으며 고려는 이러한 유목민족이 세운 왕조에 정치와 군사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신복했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신복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의 관찬사서 《고려사》에는 본기(本紀)를 사용하지 않고 세가 체제를 사용함으로써 번왕의 명분을 보여주었지만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고려왕 재위 기간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러한 기년 방식은 번국(藩國)의 입지를 인정하면서도 순순히 신복하지는 않는 강한 자주의식을 보여주며 《고려사》 편찬의 기본 배경이 되었다.

몽골과 고려의 교섭은 고종 5년(1218)에 몽골군 거란 유민(遺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고려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양국은 동맹관계를 맺고 공식 교섭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몽골은 여러 차례 고려에 재물을 요구해 고려의 불만을 샀다.

① (한)박인호 : 《한국사학사(学史)》, 제 57 페이지

② 《동문선(東文選)》 권 44 《진고려사전》

③ (한)박인호 : 《한국사학사(学史)》, 제 56--57 페이지

양국간 전쟁은 귀국하던 몽골 사신의 피살되면서 발발했다. 1231~1258년, 고려에 대한 몽골의 침략은 7 차례나 되었으며 고종 46년(1259)에 고려 태자 왕전(王僊)을 몽골에 보내어 양국은 종전에 합의했다. 그 당시 마침 몽골대칸이 사망하면서 쿠빌라이가 왕위에 올랐고 원나라를 세웠다. 얼마 후, 고려 고종이 사망하자 쿠빌라이는 사신을 보내 왕전을 고려로 돌려보내 왕위에 오르게 했다. 원종 즉위 후 양국의 평화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쿠빌라이는 고려의 도움을 받아 일본원정을 시작했다. 조선은 고려를 중심으로 《고려사》를 편찬했으므로 일본원정사에 대한 서술도 조선왕조식의 “몽골 침략” 버전이다.

2. 일본원정에 대한 《고려사·세가》의 서술 원칙과 사례 선정

정벌을 시작하기 전, 쿠빌라이는 일본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권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다. 따라서 고려왕조는 어쩔 수 없이 원의 길잡이가 되었다. 이 부분은 《고려사》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었으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고려의 태도와 원의 압박 속에서 독립과 자국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고려사》의 서술 원칙은 고려왕조를 중심으로 자국 의도와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다.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 준비단계. 원의 무리한 요구와 고려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상세한 서술.

원종 7년(1266), 일본 정벌을 시작하기 전에 쿠빌라이는 고려를 경유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다. 고려와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낸다는 고려인 조이(趙彝)의 참소를 들은 쿠빌라이는 조서(詔書)와 함께 사신 흑적과 은홍을 고려에 파견해 고려도 사신을 파견할 것을 명했다. 고려는 어쩔 수 없이 추밀원(樞密院)의 송군비(宋君斐)와 시어사(侍御史) 김찬(金贊)을 시켜 흑적 등과 함께 일본에 가게 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에 도착하지 못했다. 원종 8년(1267) 정월에 송군비, 김찬과 몽골 사신은 거제까지 갔다가 풍량이 심해 돌아왔다. 원종은 송준비에게 흑적과 함께 원나라 황제에게 보고하도록 명했으며 주소(奏疏)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첫째, 일본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즉 풍량이 심한데다 일본인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어” 몽골 사신의 신변안전을 염려해 부득이하게 포기했다는 것. 둘째, 고려와 일본이 친하게 지낸다는 조이의 증상모략에 대한 해명, 특히 “본국은 일본과 가깝게 지낸 적이 없으며 가끔 쓰시마 섬의 주민들과 무역을 진행할 뿐, 기타 일본인과는 한번도 교류한 적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조이의 거짓말은 근거가 없다는 것. 셋째, 원세조 즉위 이후, 고려에 대한 융은(隆恩)을 아끼지 않았으며 “성은이 망극하오니 항상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필요로 한다면 반드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맹세합니다.(圣恩天大, 誓欲报効, 如有可为之势, 而不尽心力有如天日。)” 미미한 힘이나마 이바지하고 싶다는 것. 즉 이는 입장 표명, 죄책 회피 등을 위한 외교 목적이 두드러진 조소이다. 즉 몽골의 첫번째 사신 파견이 실패했다는 점을 통해 고려의 소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물론, 고려의 소극적인 의도에 대해 몽골은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다. 8월 초하룻날, 흑적, 은홍 및 송군비는 몽골의 문책 조서를 가지고 고려에 돌아왔다. 고려의 핑계와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쿠빌라이는 고려가 책임 회피를 위해 잔피를 부리고 성실하지 못하다며 거세게 질타했다. “덕 없는 자는 하늘의 버림을 받으리라. 인간은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데 경은 이미 여러 번 식언(食言)을 했으니 스스로 반성하라(天命难谄, 人道贵诚, 卿先后食言多矣, 宜自省焉)”. 아울러 몽골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할 것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반드시 성은에 보답할 것을 맹세한다”는 고려의 태도를 재확인하면서 지금이 바로 고려가 몽골에 보답해야 할 시기임을 지적했다. 몽골의 온갖 압박 속에 고려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정벌의 길잡이가 되었다.^①

십 여일 뒤, 고려왕 원종은起居舍人 반부(潘阜)에게 원과 고려의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게 했다. 원의 국서에는 다음과 같다. “고려는 짐의 동부에 위치한 번국이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건국 이래 중국과 교통했던 걸로 알고 있으나 짐이 즉위한 후 귀국과의 교류가 중단되었으니 사신을 파견해 짐의 의지를 전하노라. 앞으로 양국이 서로 우호적으로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바이다. 성인은 세상을 자기집처럼 여긴다고 했으니 서로 교통하지 않고서야 어찌 한 집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귀국에 출병할 터이니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高麗, 朕之東藩也; 日本密迩, 開國以來, 亦時通中國, 至于朕躬, 而无一乘之使以通和好, 尚恐王國知之未審, 故遣使持書布告朕志, 冀自今以往, 通問結好, 以相親睦. 且聖人以四海爲家, 不相通好, 豈一家之理哉! 以至用兵, 夫孰所好, 王其圖之。).”^② 쿠빌라이는 일본에 사신을 통해 교류할 것을 원했고 일본도 이에 동의할 것을 바랐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군사를 일으켜 압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려도 일본에 국서를 보내 몽골에 대한 고려의 입장을 밝혔으며 일본에 원의 사신에게 굴복할 것을 권했다. 다시 말해, 원은 기존에 일본과 교류가 없었고 또 일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지만 쿠빌라이는 고려를 통해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 의사를 전했다. 고려는 원의 강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양국을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쿠빌라이의 조서를 일본에 전달함과 동시에 고려의 국서를 보냄으로써 사신을 통한 교류를 제안했다. 일본은 사신까지 파견해 선의를 베풀고자 했던 몽골을 무시했다. 그 후, 쿠빌라이는 조양필(趙良弼)을 사신으로 일본에 보냈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려사》의 《원종세가》에는 몽골의 협박을 받

① 《고려사》 권 26 《원종세가 2》, 원종 8년 8월 병진

② 《고려사》 권 26 《원종세가 2》, 원종 8년 8월 정축

은 고려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던 역사 사실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그 배후에는 어쩔 수 없이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던 무력함과 소극적인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사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술한 조서에서 나타난 몽골의 협박적 메시지를 통해 몽골의 강대함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몽골에 대한 조선 사관(史官)들의 혐오감을 나타낸다. 사실상, 고려 사신을 통한 의사 전달은 핑계에 불과하며 일본에 대한 쿠빌라이의 야망은 사절을 통한 교류 뿐만이 아니었다.

원종 12년(1271) 정월, “몽골은 조양필, 쿠린치(忽林赤), 왕국창(王国昌), 홍다구 등 40 여명을 일본에 보냈다.”^① 몽골 사신은 쿠빌라이의 조서도 함께 가지고 갔으며 이는 몽골이 고려를 통해 일본에 파견한 첫번째 사절단이다. 이 사절단은 2차에 걸쳐 파견되었는데 첫번째는 조양필을 국신사(國信使)로 보냈으며 조양필은 고려의 “행신(幸臣)”인 강윤소(康允紹)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두번째는 쿠린치, 왕국창, 홍다구 등 장병들을 예비 신사로 보냈다. 특히 홍다구는 원래 고려인이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몽골에 귀화했으므로 그 역시 몽골 장병이 되었다. 사서에는 특히 홍다구가 교영(郊迎)하러 나온 고려왕 원종에게 “불배(不拜)”했음을 지적했다.^② 다시 말해 고려왕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사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통해 홍다구의 거만함을 표현했으며 이에 대한 고려 군신(君臣)과 사관들의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이 몽골의 요구를 무시하자 몽골은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했으며 우선 군량 준비부터 시작했다. 충분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몽골은 혼도(忻都)에게 군병을 데리고 고려에서 둔전(屯田)을 만들게 했으며 고려에 농우(農牛) 3000 마리, 농기구와 종자 등을 요구했다. 고려는 전중감(殿中監) 곽여필(郭汝弼)을 몽골에 파견해 진정표(陳情表)를 올려(蒙古遣殿中監郭汝弼前往蒙古上陳情表) 몽골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며 거절했다.

대략으로 말하기를, 봉주 둔전, 농우, 농기구, 종자, 군량 등에 관해 아뢰옵니다. 소는 앞서 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의 도읍에는 농우를 사육하는 가구가 없으며 타지의 농민들이 사육하기는 하나 1, 2 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가구는 경작에 쓰거나 서로 임대하기도 합니다. 현재 타지의 농우도 전라도의 식량 이전으로 인한 기아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농기구에 관련해서는 소방 주민들 중에 워낙 농기구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적으므로 귀국에서 요구한 수량을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종자의 경우, 백성들은 해마다 경작을 통해 수확한 후 일부는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식량으로써 자가소비 합니다. 군량에 관련하여 귀국 군대에게 제공한 후 소방의 비축은 역적들의 약탈 및 둔전의 군병 및 토벌 군병에게 공급한 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외신민(中外臣民)에 대한 징수가 거듭되어 혹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을 가 걱정되며 종자, 여물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을 군량을

① 《고려사》 권 27 《원종세가 3》, 원종 12년 정월 기묘

② 《고려사》 권 27 《원종세가 3》, 원종 12년 정월 기묘

몇 만석이나 공급해야 하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凤州屯田, 农牛、种子、军粮等事。若乃农牛, 如前表奏, 小邦京中鲜有畜使者, 外方农民虽产之, 饶者畜养亦不过一二头, 贫者多以未耕, 或相赁牛而使之。今外方牛畜, 悉因全罗道粮饷转输, 以至饥困, 损失者大半。农器, 则小邦人民元来未有贍庀者, 此皆虽不得如数, 并当随力供办。种子, 则百姓趋年畊作, 以修贡赋用, 其余以为粮料。……军粮, 则大军之后, 小邦元来蓄积, 除逆贼攘夺外, 悉因供亿留屯军马及追讨军马, 罄竭无余。中外臣民征敛者累度, 犹不连续, 且又泛计种子、菽秣, 接秋军粮凡几万硕, 此则何从而致之耶!)^① 상술한 진정표를 통해 자국의 어려움을 어필함으로써 몽골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고려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고려사》에는 이러한 진정표와 몽골의 요구에 대응하는 고려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서술했다. 조선의 사관들은 당시 종주국이었던 명나라에 대해서도 똑 같은 감정으로 사서를 편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명나라는 원처럼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처녀(處女)와 화자(火者)에 대한 요구와 환관 사신의 파견 등으로 인한 압박을 받았다.^② 따라서 《고려사》편찬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종속국의 무력함과 반항 의식을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물론 그 효과는 미미했을지라도 그들의 순순히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주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표가 통하지 않자 단사관(斷事官) 심혼(沈渾)을 파견해 표를 올렸으며 쿠빌라이가 명을 철회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대략적으로 말하기를:

여기 백성도 황제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농우와 농기구, 종자를 전부 잃게 되면 그들은 할 일을 잃게 되고 굶주림과 과로를 앓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역적의 반열에 들어설 지도 모릅니다. 황제께서도 이러한 결과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噫! 此百姓皆是皇帝之百姓, 乃此农牛、农器、种子一皆收夺, 使失其业, 则恐百姓决定饥死, 其又在此者役烦力竭, 不堪困苦。而从逆贼者, 靡有歉艰, 则焉知愚民有所贰于彼哉! 圣鉴若知如此, 必曰何不揆力陈实, 早达宸所, 使我百姓至于此极? 然则谁当任其责?)^③

표문을 보면 고려는 최대한 몽골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도 백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농우, 농기구, 종자를 다 빼앗아 간다면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으며 혹 이로 인해 역적이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도 황제의 백성”이므로 황제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이며 따라서 고려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역시 몽골에 대한 고려의 투쟁을 보여

^① 《고려사》 권 27 《원종세가 3》, 원종 12년 3월 병인

^②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진학림(陈学霖): 《명나라 인물과 전설》을 참고하기 바람.

홍콩: 홍콩중문대학교출판사, 1997년

^③ 《고려사》 권 27 《원종세가 3》, 원종 12년 3월 정사

준다.

원종 13년(1272) 정월,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양필은 일본 사신 12명을 데리고 고려로 돌아왔다. 고려왕 원종은 대도(大都)에 사람을 보내 원에 보고하게 했으며 축하의사를 표했다. 같은 해 12월, 원은 초유(招諭)를 목적으로 조양필을 다시 일본에 보냈지만 지난번처럼 순조롭지는 않았다. 원종 14년(1273) 3월, 조양필은 일본 다자이후에 도착했으나 국도(國度) 진입을 거절당하자 다시 고려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몽골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함과 동시에 홍다구를 필두로 한 몽골군은 혼도에서 원종 14년(1273) 4월을 마감으로 조선반도의 동남 연해 제도(諸島)인 진도(珍島), 탐라국(耽羅) 등을 점령함으로써 일본 침략을 위한 준비를 했다. 정벌 과정에 대해서는 《충렬왕세기》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1차 정벌 때의 소극적인 대응과는 달리 2차 정벌 과정에서 고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전쟁의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몽골 장병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고려에 대한 몽골의 이익침해를 막고자 했다.

2차 정벌 책략 결정 당시 고려 충렬왕은 대도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왕은 7개 일[事]로써 청하기를, “1. 우리나라 군대로서 탐라(耽羅)를 지키고 있는 자들을 동정(東征)의 군대에 보충할 것. 2. 고려군, 한군을 감소하고 여한군(麗漢軍)을 감(減)하고 도리첩목아로 하여금 몽고군을 더 징발하여 진격하도록 할 것. 3. 홍다구(洪茶丘)에게 직임(職任)을 더 높여주지 말고 그 성공을 기다려 상을 줄 것이며, 도리첩목아와 신(臣)으로 하여금 동정성사(東征省事)를 관장(管掌)케 할 것. 4. 우리나라의 군관(軍官)에게 모두 패면(牌面)을 하사할 것. 5. 한지(漢地)의 바닷가[濱海] 사람을 초공(梢工)과 수수(水手)에 충당할 것. 6. 안찰사(按察使)를 보내 백성의 고통을 위문할 것. 7. 신(臣)이 몸소 합포(合浦 마산(馬山))에 이르러 군마(軍馬)를 검열하여 보내도록 할 것. (王以七事請：一以我軍鎮戍耽羅者，補東征之師；二減麗漢軍，使閤里帖木兒益發蒙軍以進；三勿加홍다구職任，待其成功賞之，且令閤里帖木兒與臣管征東省事；四小國軍官皆賜牌面；五漢地濱海之人並充梢工水手；六遣按察使廉問百姓疾苦；七臣躬至合浦閱送軍馬。)”^①

상술한 자료가 보여준 것처럼 고려왕은 이번 정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대신을 통해 몽골 조정에게 돌아가 황제로부터 직접 정벌에 관한 명을 받을 것을 요청했으며 대신을 통해 전달 받지 않는 등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했다. 충렬왕은 군사 배치에 관해서도 7개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그는 한군과 고려군을

^① 《고려사》 권 29 《충렬왕세기 2》, 원종 6년 8월 신묘

감소하고 몽골군을 더 징발할 것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수수(水手)도 한지인으로 충당하고 고려 수수에만 의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려의 책임과 부담을 줄였다. 둘째, 숙적인 홍다구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직위를 위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리첩목아와의 협력을 통해 정벌을 지휘할 것을 요청했다. 즉 충렬왕은 정벌 과정에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기 위해 또 고려 국정에 대한 정적(政敵)의 간섭을 막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였다. 《고려사》에도 그의 이러한 행보를 집중적으로 서술했다. 비록 쿠빌라이는 충렬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관심을 보였다. 9월 병신일, 몽골 정벌군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명령이 정벌 총사령관 저택에 도착했다. “첫째……필요로 하는 군량, 배, 뱃사공, 수수 등 모든 군사물품은 하달된 문서에 적힌 분공에 따라 준비시켜 필요 시 사용하도록 하며 일시 착오가 없도록 하라. 둘째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어 건초에 불을 지르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일이므로 하달된 문서에 적힌대로 공문을 써붙여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죄를 물으라.”(“其一……据本国见管粮储船只梢工水手, 一切军须, 请照验行下合属, 如法准备, 听候区用, 勿值临时失误。其一, 经行去处, 窃恐不畏公法之人, 放火烧草, 事系利害, 请照验行下合属, 出榜禁约, 如违, 罪有所归。”)① 이 두가지 규제는 곧 충렬왕의 제안에 대한 피드백이며 정벌군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고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았다. 《고려사》에는 고려에 대한 몽골군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2차 정벌 과정에서의 충렬왕의 행보를 통해 몽골군의 악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의 노력과 성과를 엿볼 수 있다.

《고려사》에는 정벌 준비 단계에서 고려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2차 정벌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고려왕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통해 종주국인 원에 대한 고려의 대응 및 투쟁 과정을 반영했으며 따라서 고려의 독립 의식을 보여주었다.

둘째, 전쟁 전후, 인력, 식량, 여물 등 물자의 소모로 인해 고려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역시 《고려사》에 상세하게 반영했다.

예를 들어, 《고려사》에서 원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식에 관해서는 고려의 무력함을 충분히 반영했지만 고려가 소모한 물자, 직면한 어려움, 정벌을 위해 만든 함선, 소모한 인력, 식량, 여물 등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일본원정을 위해 고려가 치른 대가를 충분히 반영했다. 예를 들면 “(원종)15년 봄 정월, 원나라는 총관 caqu(察忽)를 보내와 군함 300 척을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장인, 역부, 자재 등을 모두 고려에 부담시켰으며 …독촉을 심히 함……교주도(交州道)에 보내 부부사(部夫使)로 삼아 각 지역에서 장인, 역부 3만 오백여명을 모집하여 조선소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때 역마가 끊기질 않고 각종 업무가 번잡하며 또한 기한이 급하여 벼락같이 추진되니 백성들의 질고가 더 이를 데 없었다.”(“元宗

① 《고려사》 권 29 《충렬왕세가 2》, 충렬왕 6년 9월 병진

十五年春正月，元遣总管察忽监造战舰三百艘，其工匠役徒一切对象，全委本国应副……兴役催督甚严……于交州道各为部夫，使征集工匠役徒三万五百余名，起赴造船所。是时，驿骑络绎，庶务烦剧，期限急迫，疾如雷电，民甚苦之。”^① 원종 15 년(1274)2 월 갑자일, 고려왕은 별장(別將) 이인(李仁)을 원에 파견해 정벌을 위한 고려의 기여와 소모한 식량 물자 등을 일일이 보고하게 했다. 특히 고려가 직면한 어려움과 백성들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원에 “연말 공여를 감면해주시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십시오. (岁令供给, 罔有期限, 将无奈何! 兹实悯焉! 乞皆蠲免, 以惠远人)”라고 청을 들었다.^② 즉 고려의 국력 회복을 위해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원에 요청했다.

경제면에서 고려는 원과 매우 꼼꼼하게 따졌으며 자국이 공급한 식량, 여물 등 물자를 원에 상세하게 보고했으며 일일이 정산했다. 충렬왕 3 년(1277), 고려는 상서중서성(上书中书省)에 사신을 파견해 알리기를 “소방은 지원 7 년이래, 진도, 탐라국, 일본을 정벌에 참여했으며 함포진 변방군, 탐라 주둔군, 염백주군 등을 위해 한두(漢斗) 기준으로 연간 18629 석이두, 소와 말 여물 32952 석육두를 공급했습니다. 이는 백성에게서 징수했습니다. 그러니 현재 요구한 둔전군 3200 명 및 활단적(闊端赤) 등의 식량은 어디서 구하란 말인가! (小邦自至元七年以来, 征讨珍岛、耽罗、日本大军粮餉, 悉于百姓科收, 尔后见在合浦镇边军、耽罗防护军、盐白州归附军并阔端赤, 一年都支人粮一万八千六百二十九石二斗, 马牛料三万二千九百五十二石六斗, 皆以汉斗计. 亦于百姓科收, 今者所遣屯田军三千二百并阔端赤等粮料, 更于何处索之!)”^③ 특히 한두 기준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고려가 전쟁을 위해 공급한 식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아울러 상술한 내역은 1 차 정벌 시 고려가 공급한 식량과 여물이다. 《병지》에는 2 차 정벌 시 군량 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적었다.

충렬왕 3 년(1277) 2 월, 제왕부터 관료 및 서민에 이르기까지 식량을 징수해 홍다구의 군량을 보충했다. ……8 년(1282) 4 월, 일본원정을 위해 지원한 군량은 123560 여 석에 달했다. 9 년(1283) 2 월, 녹전(祿轉)을 바치지 않은 자에게 군량을 보충할 것을 명했다. 3 월, 제왕 및 백관(百官) 상공노예승려 등에게 군량을 바치도록 명했으며 제왕(諸王), 재추(宰樞), 복사(僕射), 승지(承旨)는 쌀 20 석, 치사재추(致仕宰樞), 정 3 품 관료, 문무 4,5 품 관료는 10 석, 문무 6 품 관료, 시위호군(侍衛護軍)은 8 석, 문무 7,8 품 참상해관(參上解官)은 6 석, 동반(東班) 9 품 참외부사교위(參外副使校尉) 남반(南班) 9 품은 4 석, 정잡권무대정(正雜權務隊正) 3 석, 동서 승려 1 석, 백정 노비 등은 10 말, 갑인대호(賈人大戶) 7 석, 중호(中戶) 5 석, 소호(小戶) 3 석을 바치도록 했다.

① 《고려사》 권 27 《원종세가 3》, 원종 15 년 정월

② 《고려사》 권 27 《원종세가 3》, 원종 15 년 2 월 갑자

③ 《고려사》 권 28 《충렬왕세가 1》, 충렬왕 3 년 2 월 정묘

70 세 이상의 경우 남녀 상관없이 징수대상에서 제외했다. ①

상술한 자료는 고려왕조가 군량 확보를 위한 방법을 서술했다. 첫째, 상술한 내용에서 보다시피 2 차 정벌 기간의 군량 확보를 위해 고려는 왕에서 병사 및 서민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군량을 바쳐야 했다. 둘째, 이는 일본 정벌은 고려 전반 사회의 악재가 되었으며 그 누구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 차 정벌 전, 몽골군이 고려에서 군둔(軍屯)을 설치해 고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였지만 2 차 정벌 때에는 군둔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고려는 온 국민을 동원해야 했다. 셋째, 《고려사》중에서도 특히 《병지》에서 군량 확보 문제를 서술했는데 이는 《世家》에서 군량 등 공급 문제를 상세하게 서술한 것은 이 부분의 역사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고려사》권 29 《충렬왕세가 2》의 충렬왕 6 년(1280) 10 월 무술에는 원의 중서행성의 이첩(移牒)의 내용을 특별 수록했는데 주로 병사들의 도주 이야기와 징계방법을 소개했으며 이 부분은 일본정벌 전쟁에 대한 소개에 비해 몇 배 이상의 분량을 차지한다. 즉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하며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조선 관찬 사관들의 묘한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6 년 11 월, 중서성에 준비 상황을 보고하기를: “소국에서 이미 병선 900 척과 뱃사공과 수수 15000 명, 군사 10000 명을 준비하였으며, 군량은 중국 석수로 계산하여 11 만 석이요, 기계까지도 모두 준비되었으니, 행여 힘을 다하여 성상의 은덕에 보답할까 하옵니다. (小国已备兵船九百艘, 梢工水手一万五千名, 正军一万名。兵粮以汉石计者十一万, 什物、机械不可缕数, 庶几尽力, 以报圣德。)”^② 준비물을 세세하게 보고함으로써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표명한 부분도 엄청난 분량의 표문으로 작성했다. 이 권에는 많은 분량의 표문 2 개를 수록했으며 이는 일본 정벌을 위한 고려의 노력과 정벌을 위해 치른 대가를 반영한다. 조선의 사관들은 고려의 준비와 노력 없는 일본원정은 있을 수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비록 일본원정 과정에서 고려는 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지만 고려 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고려사·충렬왕세가》에는 2 차례 일본원정 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했으며 고려 장교 위주로 기록했다.

지원 11 년(1274) 10 월, 여원연합군은 1 차 일본 정벌을 시작했다. 일본은 이 전투를 “분에이노에키(文永之役)라고 부른다. 《고려사·충렬왕세가》에는 이 전쟁에 대해 몇 줄로 요약해서 적었다. 사서에 서술하기를 :

겨울 10 월 을사, 도독사(都督使) 김방경으로 하여금 중군(中軍)을 이끌도록 하고 박지량(朴之亮), 김흔(金忻=金綬)을 지병마사(知兵馬事), 임개(任愷)를

① 《고려사》권 82 《병지 2》

② 《고려사》권 29 《충렬왕세가 2》, 충렬왕 6 년 11 월 기유

부사(副使)로 삼았으며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김훈(金僣)을 좌군사(左軍事)로 삼고 위득유(韋得儒)를 지병마사, 손세정(孫世貞)을 부사로 삼았으며 상장군(上將軍) 김문비(金文庇)를 우군사(右軍使)로 삼고 나유(羅裕), 박보(朴保)를 지병마사로, 반부(潘阜)를 부사로 삼아 삼익군(三翼軍)이라고 불렀다. 삼익군은 원의 도원수(都元帥) 홀도(忽敦), 우부원수 홍다구, 좌부원수 유복형과 더불어 몽골군, 한군 25000 명, 우리 군사 8000 명, 사공, 인해, 수수 6700 명 및 전함 900 여 척을 거트리고 일본원정에 나섰다. 이키섬(一歧島)에 이르러 1000 여 급을 격살한 뒤 길을 나누어 진격하였으니 살해한 자가 매우 많았으며 전쟁은 해가 질 무렵에 멈췄다. 마침 밤에 풍량이 심해 함선은 바위에 부딪혀 부서졌고 김훈은 익사했다.

(冬十月乙巳, 都督使김방경將中軍, 朴之亮、金僣知兵馬事, 任愷爲副使; 金僣爲左軍使, 韋得儒知兵馬事, 孫世貞爲副使; 金文庇爲右軍使, 羅裕、朴保知兵馬事, 潘阜爲副使, 號三翼軍。與元都元帥忽敦、右副元帥홍다구、左副元帥劉復亨, 以蒙漢軍二萬五千、我軍八千、梢工引海水手六千七百、戰艦九百餘艘征日本, 至一歧島, 击杀千余級, 分道以進, 倭却走, 伏尸如麻, 及暮乃解。會夜大風雨, 戰艦觸岩崖多敗, 金僣溺死。)”^①

지원 18 년 (1281), 원은 2 차 일본정벌을 진행했으며 일본은 이 전투를 “고안노에 키(弘安之役)”라고 불렀다. 이 전투의 경위에 대해서도 《고려사·충렬왕세가》에는 몇 줄로 요약해서 언급하기를 :

7 년 5 월 무술, 혼도, 홍다구 및 김방경, 박구(朴球), 김주정(金周鼎) 등은 수군을 거느리고 일본 정벌에 나섰다.

계해, 행중서성 총파가 보고하기를, 26 일, 장병들이 이키섬으로 향할 때 수군 113 명, 뱃사공 36 명이 풍량을 만나 행방불명 되었다. 낭장(郎將) 유비(柳庇)를 보내어 보고하였다.

6 월 임신, 김방경 등은 일본 병사들과의 전투에서 300 여 명의 목을 베었다. 다음날 다시 전투를 벌였으나 홍다구는 패배했고 범문호가 전함 3500 척과 군사 10 만 여명을 이끌고 이르렀다가 때마침 태풍을 만나 만군(蠻軍) 모두 익사했다.

8 월 기묘, 합포에서 출발한 별장 김홍주는 행궁에 도착해 일본원정군이 패하였으며 원수 등이 합포로 돌아왔다고 보고했다.

11 월 임오, 각 도 안렴사(按廉使)들이 보고하기를 “일본 정벌군 9 천 9 백 60 명, 초공, 수수가 1 만 7 천 29 명이었는데 그 중 살아서 돌아온 자가 1 만 9

^① 《고려사》 권 28 《충렬왕세가 1》, 원년 10 월 을사

천 3 백 97 명이다”라고 하였다

(七年五月戊戌，忻都、茶丘及金方庆、朴球、金周鼎等以舟师征日本。

癸亥，行省总把报：是月二十六日，诸军向一歧岛，忽鲁勿塔船军一百十三人、梢手三十六人，遭风失其所之。遣郎将柳庇告于元。

六月壬申，金方庆等与日本战，斩首三百余级；翼日复战，茶丘军败绩，范文虎亦以战舰三千五百艘、蛮军十余万来会，值大风，蛮军皆溺死。

八月己卯，别将金洪柱自合浦至行宫，告东征军败，元帅等还至合浦。

是月，忻都、茶丘、范文虎等还，元官军不返者，无虑十万有几。

十一月壬午，各道按廉使启：东征军九千九百六十名、梢工水手一万七千二十九名，其生还者一万九千三百九十七名。)①

상술한 두 사료를 종합해보면 첫째, 2 차례의 전쟁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이는 《고려사·충렬왕세가》는 일본원정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역사 사건이 아님을 의미한다.

둘째, 서술 내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서에서는 고려 장교와 군사 편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1 차 정벌에서 고려군은 8000 명에 불과 했지만 좌, 중, 우측의 지휘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원의 장교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비록 고려군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고려사》의 집중 서술 대상이 되었다. 2 차 정벌도 여전히 고려 장교 위주로 서술했으며 장군의 이름까지 수록했다. 이번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전투도 고려 장군 김방경이 거느린 고려군이 이루어졌으며 300 명의 배었다고 기록한데 반해, 원의 전투에 대해서는 패전한 사례만 기록했다. 범문호가 거느린 몽골군을 “만군”이라고 부른 것도 몽골군에 대한 경멸의 태도를 반영한다.

셋째, 전쟁 경위에 대한 소개도 아주 간략하게 서술했다. 2 차례 전에서 패배한 원인을 “대풍랑”이라고 기록했다. 1 차 정벌 때 “이키섬에 이른 후 1000 여 명에 달하는 목을 베었으며 길을 나누어 진격해 많은 적을 사살했으며 해가 질 무렵에야 전투를 멈췄지만 밤에 풍랑이 심해 전함이 바위에 부딪혀 패배했다.(至一歧岛，击杀千余级，分道以进，倭却走，伏尸如麻，及暮乃解。会夜大风雨，战舰触岩崖多败)” 정벌과정에서 먼저 승리했다가 패배했는데 밤에 “대풍랑”을 만났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 “신풍(神风)”이라 불렀던 바람이다. 2 차 정벌 때는 이튿날 “태풍으로 인해 행방불명 되었으며”, “태풍으로 인해 만군이 모두 익사했다”고 썼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원정 실패의 직접 원인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2 차례 전쟁의 손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첫번째 사료에는 전함 침몰 외에도 특히 김흔의 익사를 강조했으며 그는 익사한 고려 장병 중에서 직위가 가장

① 《고려사》 권 29 《충렬왕세가 2》

높은 장군이다. 그리고 《연표》에 서술하기를: “10 월, 김방경과 원의 원수 홀돈, 홍다구 등이 일본 정벌을 시작한 후 이키섬 전투에서 패했으며 13500 여 명에 달하는 군사를 잃었다”고 기록했다.^① 두번째 사료에서는 원군의 사망 상황을 기록했으며 일본원정이 수많은 사상자를 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연표 2》에서는 “원 지원 18 년, 충렬왕 7 년 5 월, 김방경과 혼도, 다구는 일본 정벌에 나섰다가 패가대(覇家臺)에 이르러 패전했으며 10 만 명에 달하는 군사가 잃었다. (元至元十八年, 충렬왕七年五月, 김방경與忻篤(都)、茶丘征日本, 至覇家台戰敗, 軍不還者十萬有奇)”^② 이는 1 차 정벌에 대한 서술과 흡사하며 적은 분량으로 요약했으며 원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를 반영했다. 《고려사·충렬왕세가》에 수록된 일본원정의 주인공은 고려군이며 원나라 군은 조연으로, 일본 해전은 배경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고려사》는 주체성을 강조한 사서이며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고려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서술했다고 볼 수 있다.

3. 일본원정 고려 장군의 전기에 대한 《고려사》의 서술 방식

인물을 중심으로 편찬한 기전체 사서이며 인물전기를 통해 역사사건을 서술했다. 이번 전쟁에 참여한 고려 장교들 중에서 《고려사》에 인물전기로 수록된 것은 주로 《김방경전》 및 그의 아들 김혼전, 부하 박구전, 《김주정전》, 《라유전》, 김문필전 및 《이정전》 등이 있다. 그 밖에 이장용전, 홍복원전, 조이전이 있다. 이러한 인물전기 중에서 일본원정을 상세하게 서술한 것은 《김방경전》이며 기타 인물전기에는 간단하게 언급했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역사인물의 생애에 따라 긍정적으로 서술한 전기, 예를 들어 《김방경전》이 있는 가하면, 조이와 홍복원처럼 반면교재로 삼아 《반역전》에 수록한 것도 있다. 즉 《고려사》의 인물 선정과 서술방식은 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려사》의 《반역전》은 총 6 권으로 구성되었다. 서문에는 “공자(孔子)는 『춘추(春秋)』를 지을 때, 난신적자(亂臣賊子)와 지역에 할거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에게 특히 엄격하였으며, 죽은 자라도 용서 없이 성토했으니 이는 후세의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충성으로 순종하는 신하는 일신이 영달(榮達)하고 그 가문을 보존하여 아름다운 이름이 후세에 전해졌다. 그러나 반역자는 가마술에 삶기는 형벌을 받았으며 그 일족은 몰살되고 제사는 끊기었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이에 반역전을 짓는다. (孔子作《春秋》, 尤严于亂臣賊子及據地以叛者, 其誅死者而不貸, 所以戒生者于后也. 夫人臣忠順, 則榮其身, 保其宗, 而美名流于后; 叛逆者未有不脂潤鼎鑊, 赤其族而覆

^① 《고려사》 권 87 《연표 2》

^② 《고려사》 권 87 《연표 2》

其祀者，可不戒哉！作《叛逆转》。)”^① 《고려사》에는 고려인임에도 불구하고 원나라와 함께 같은 고려인을 해치는 자는 《반역전》에 기록했는데 일본원정 장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복원전》과 《조이전》이다. 조이는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이후 고려를 배반하고 원나라로 도망쳐 원나라에 가서 여러 나라 말을 해득하여 수재라 일컬어졌다. (中进士，后反，入元称秀才，能解诸国语，出入帝所)”. 《고려사》에 의하면 그는 몽골군을 거느리고 고려를 침략한 적은 없지만, 쿠빌라이에게 진언하기를 “고려와 일본은 친하게 지냅니다. 일본에 사신 파견 시 본국에 길안내를 명하십시오. (高丽与日本邻好，元遣使日本，令本国乡导。)” 이러한 진언으로 인해 고려는 송군비를 원의 사신과 동행하게 했다. 그 뒤로 여러 번 고려에 대해 참소한 적이 있다. 《고려사》에는 “조이는 항상 고려에 대해 중상모략을 일삼았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彝常以谗毁为事，竟不得志而死。)”고 기록했다. 《고려사》에는 고려를 중상모략하려는 자들을 비난했으며 “김유(金裕)와 이추(李樞)도 역시 고려를 배반한 자들이다. (有金裕、李樞者，亦反人也。)”고 밝혔다.^② 《반역전》에 수록된 인물은 “반인(反人)”이라고 불렸다. 이는 부귀영화를 위해 나라를 배반한 자들에 대한 사관들의 혐오감을 보여준다.

홍복원, 홍다구의 아버지이며 《반역전》에 수록된 인물이다. 《고려사》에는 홍다구전을 별도로 편찬하지 않고 《홍복원전》에 홍다구의 행보를 기록했다. 홍원복은 원래 서경낭장(西京郎將)이었으나 고종 12년(1233)에 선유사(宣諭使) 정의(鄭毅) 등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한 후 몽골로 도망갔다. “홍복원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동경총관(東京總管)이 되어 고려의 군민(軍民)을 다스리게 되니, 원나라에 투항한 40여 성의 백성들이 모두 그에게 소속되었다. 홍복원이 고려를 모함하면서 몽고군을 따라 왕래하자……이때부터 원나라 군사들이 해마다 침략해 와서 주군(州郡)들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모두 홍복원의 인도에 따른 것이었다. (福源在元为东京总管，领高丽军民，凡降附四十余城民皆属焉。谗构本国，随兵往来……然自是元兵岁至，攻陷州郡，皆福源导之也。)” 그 후 영녕공의 몽골 황실 출신 부인의 미움을 사 죽임을 당했다. “가산을 몰수한 후 그 처와 아들 홍다구, 홍군상(洪君祥) 등에게 형틀을 씌워 압송해 갔다. 그 후 홍복원의 여러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원통하게 여겨 온갖 수단을 동원해 고려를 모함하였다. (籍没家产，械其妻及子茶丘、君祥等以归。福源诸子憾父之死，谋陷本国，无所不至。)”^③ 원종 2년(1261), 쿠빌라이가 즉위한 후 홍복원을 위해 원한을 씻어주고자 홍다구에게 부친의 관령귀부고려군민총관(管領歸附高麗軍民惣管) 벼슬을 이어받도록 했다. 그 뒤로 홍다구는 원나라 조정에서 벼슬을 했으며 고려출신 배경을 이용해 원나라의 고려 관련 사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홍다구는 고려를 배려하기는 커녕 중상모략을 일삼았으며 고려왕과 대신들은 그의 악행에 이를 갈았다.

① 《고려사》 권 127 《반역전 1》 서문

② 《고려사》 권 130 《반역 4·조이전》

③ 《고려사》 권 130 《반역 4·홍복원전》

고려왕 충렬왕은 홍다구를 엄청 경계했으며 쿠빌라이에게 홍다구를 원나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진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구가 있어 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심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구는 군사에만 능할 뿐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일까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반드시 군대를 파견해야 하신다면 많은 적든 타타르 군을 파견해 주시고 다구의 군대는 소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然茶丘在焉，臣之为国，不亦难哉！如茶丘者，只宜理会军事，至于国家之事，皆欲擅断。……上国必欲置军于小邦，宁以鞑靼汉儿军，无论多小而遣之，如茶丘之军，惟望召还。”)^① 홍다구의 국정간섭으로 인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충렬왕은 직접 황제에게 홍다구를 소환해 원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진언했다. 이에 대해 쿠빌라이가 주의를 주자 충렬왕은 “다구의 참소”라고 반박했고 이어 쿠빌라이는 “다구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충렬왕이 말하기를 “흔도는 타타르인이므로 고려에 있어도 좋지만, 홍다구와 그의 고려군은 늘 문제를 일으키오니 홍다구와 그의 고려군을 소환하시고 흔도의 타타르군으로 대체해주시시오.(忻都，鞑靼人也，可则可矣。使茶丘在，则与高丽军妄构是非，虽忻都不能不信，望令茶丘与高丽军皆还于朝，以鞑靼汉儿军代之。)”^② 충렬왕은 타타르인을 선택할 지언정 홍다구가 고려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 고려왕과 홍다구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다. 당시 홍다구는 탐라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쿠빌라이는 흔도와 홍다구를 소환했으며 고려는 이 기회를 빌려 탐라 수호 임무를 떠맡았으며 탐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일본원정기간, “(먼저) 홍다구를 감독조선관군민총관(監督造船官軍民總管)으로 임명했다. 항구가 기한을 정해 놓고 함선의 건조를 심하게 독촉하는 한편 부부사(部夫使)를 각지로 보내 기술자를 징집하자 국내 모든 지역이 큰 고을 꺾었다. 황제는 또 홍다구를 시켜 고려의 식량 사정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그를 동정부원수(東征副元帥)로 삼았다. 홍다구는 충청도지역의 뱃사공들과 선원들이 기일에 맞추어 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부사인 대장군 최면(崔沔)을 장형에 처한 후 대부경(大府卿) 박휘(樸暉)로 교체했다. 以茶丘为監督造船官軍民總管。茶丘克期催督甚急，分遣部夫，使征集工匠，诸道骚然。帝又命茶丘提点高丽农事，又命为东征副元帥。茶丘以忠清道梢工水手不及期，杖部夫，使大将军崔沔以大府卿朴暉代之。”^③ 이 사료는 원이 고려를 징용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지만 주로 홍다구가 전쟁을 이용해 고려를 괴롭히는 악행을 수록했다. 그는 동정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압박했으며 다루가치(達魯花赤)만큼 잔인한 인물이었다. 비록 홍다구의 전기는 따로 편찬하지는 않았지만 홍복원전에서 이미 그 악행을 일일이 까밝혔다. 이 전기에서 언급한 고려에 대한 원의 징용이란 홍다구의 악행들을 기록하기 위한 배경일 뿐이다. 비록 홍다구를 원나라 사람으로 간주했지만 《반역전》에는 그를 배반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반역전》에 조이를 수록했듯이 이것 역시 홍다구에 대한 조선 사관들의 비판적인 정서를 반영

① 《고려사》 권 28 《충렬왕세가 1》，충렬왕 4년 7월 갑신

② 《고려사》 권 28 《충렬왕세가 1》，충렬왕 4년 7월 갑신

③ 《고려사》 권 130 《반역 4·홍복원전》

한다. 원나라의 압압이가 되어 동족을 괴롭히는 고려인은 모두 “반인” 취급을 했으며 《반역전》에 수록했다.

홍원복과 조이 등을 《반역전》에 수록한 것에 반해, 김방경은 긍정적인 역사인물로 기록되었다. 김방경은 병부상서(兵部尙書)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역임했다. 일본원정 과정에서 2차례 모두 고려군 총수로 임명되었으며 그의 전기에는 2차례 전쟁에 대해 많은 분량을 들여 기록했다. 1차 정벌에 대한 《김방경전》의 기록을 살펴보자.

(원종) 15년, 황제는 일본을 정벌하고자 김방경과 홍다구에게 조서를 내려 전함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했다. 이 전함 건조를 만양(蠻樣) 방식대로 만든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장차 기한을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근심했다. 방경은……고려의 방식대로 전함을 건조하도록 허락을 받아 군사들을 독려해 전함을 만들었다. 이해 원종이 죽고 충렬왕이 즉위했다. 김방경은 홍다구와 더불어 단신으로 개경에 와서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 함포로 돌아왔다. 함포에서 도원수 홀돈 및 부원수 홍다구, 유복형과 함께 전함을 사열했다. 김방경은 중군을 거느리고 박지량과 김흔 및 지병마사 임개를 부사로 삼았다. 추밀원부사 김선은 좌군사로, 위득유와 지병마사 손세정은 부사가 되었다. 상장군 김문비는 우군사, 나우와 박보 및 지병마사 반부는 부사가 되었는데 이를 3익군이라고 일컬었다. 김흔은 곧 김수이다. 그리고 몽한군 25000명, 고려군 8000명, 뱃사공, 인쇄, 수수 6700명, 전함 900 척을 거느리고 함포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진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여진군이 제 날짜에 오지 못하자 곧 출발하여 쓰시마로 들어가 적을 무찔렀다. 이키섬에 이르니 왜군이 해안에 진을 치고 있었다. 박지량과 김방경의 사위인 조변이 그들을 추격하자 왜병들이 항복을 청하다가 다시 싸웠다. 홍다구와 박지량, 조변이 1000여 명을 쳐 죽였다. 삼랑포에 배를 남겨 두고 길을 갈라서 진격하여 적군을 많이 죽였다. 왜군이 돌격해 와서 중군을 치니 장검이 바로 좌우에서 번득였지만 김방경은 박아 놓은 말뚝마냥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다. 김방경이 신호용 화살 하나를 뽑아 쏘면서 큰소리로 외치자 왜군들은 놀라 달아나 버렸다. 한편 박지량, 김흔, 조변, 이당공, 김천록, 신혁 등이 힘써 싸우니 왜군이 대패하여 시체가 삼이 쓰러져 있는 듯이 많았다. 모든 군사들이 왜군과 싸우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싸움을 멈췄다. 김방경이 홀돈과 홍다구에게 말하기를 “병법에 적지에 들어가 싸우는 군대는 그 강한 기세를 당할 수 없다고 했소, 지금 아군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이미 적지에 들어와 군사들이 제각각 힘껏 싸우고 있으니, 이것은 곧 맹명(孟明)이 배를 불사르고 회음후가 강을 등지고 진을 친 것과 같소. 그러니 다시 싸우도록 합시다.”라고 하자 홀돈이 말하기를 “‘병법에 적은 수의 군사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 많은 수의 적군들에게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였으니 피로하고 부족한 군사들을 몰아서 날로 늘어나는 적군과 싸우게 한다는 것은 좋은 계략이 아니니 군대를 돌이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라고 했다. 그러던 중에 유복형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먼저 배로 돌아가게 되니 드디어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다. 마침 밤

에 세찬 비바람을 만나 많은 전함들이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거나 침몰되었으며 김선은 물에 빠져 죽었다. 함포에 도착하여 포로들과 노획한 병장기들을 황제와 왕에게 바쳤다. 왕은 추밀부사 장일(張鑑)을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김방경에게 먼저 개경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그에게 상주국판어사대사(上柱國判御史臺事)로 관직을 올려주었다.

((元宗)十五年, 帝欲征日本, 诏方庆与茶丘监造战舰. 造船若依蛮样, 则工费多, 将不及期, 一国忧之. 方庆……用本国船样督造. 是年元宗薨, 忠烈即位, 方庆与茶丘单骑来陈慰, 还到合浦, 与都元帅忽敦及副元帅茶丘、刘复亨阅战舰. 方庆将中军, 朴之亮、金忻知兵马事, 任恺为副使, 枢密院副使金侁为左军使, 韦得儒知兵马事, 孙世贞为副使; 上将军金文庇为右军使, 罗佑、朴保知兵马事, 潘阜为副使, 号三翼军, 忻即绶也. 以蒙汉军二万五千、我军八千、梢工引海水手六千七百、战舰九百余艘, 留合浦以待女真军, 女真后期. 乃发船入对马岛, 击杀甚众. 至一歧岛, 倭兵陈于岸上, 之亮及方庆壻赵抃逐之, 倭请降, 复来战. 茶丘与之亮、抃击杀千余级, 舍舟三郎浦, 分道而进, 所杀过当. 倭兵突至, 冲中军, 长剑交左右方庆如植, 不少却, 拔一嗥矢, 厉声大喝, 倭辟易而走. 之亮、忻、抃、李唐公、金天禄、申奕等力战, 倭兵大败, 伏尸如麻. 忽敦曰: “蒙人虽习战, 何以加此!” 诸军与战, 及暮乃解, 方庆谓忽敦、茶丘曰: “兵法: 千里县军, 其锋不可当, 我师虽少, 已入敌境, 人自为战, 即孟明焚船淮阴背水也, 请复战.” 忽敦曰: “兵法小敌之坚, 大敌之擒, 策疲乏之兵, 敌日滋之众, 非完计也, 不若回军.” 复亨中流矢, 先登舟, 遂引兵还. 会夜大风雨, 战舰触岩崖多败, 侁堕水死. 到合浦, 以俘获器仗献帝及王, 王遣枢密副使张镒慰谕, 命方庆先还, 加上柱国判御史台事.)^①

《김방경전》에는 2 차 정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충렬왕 7 년 3 월에 군사를 내어 동정(東征)할 때 김방경이 먼저 의안군(義安軍)에 이르러 병장(兵仗)을 사열하고 왕은 함포에 이르러 크게 제군(諸軍)을 열병했다. 김방경이 혼도, 홍다구, 박구, 김주정 등과 더불어 출발하여 일본 세계충 대명포에 이르러 통사(通事)김저(金貯)로 하여금 격(檄)으로 설유(說諭)하였다. 김주정이 먼저 왜(倭)와 교전하며 제군이 다 내려 같이 싸워 낭장강인, 강사자 등이 죽었다. 6 월에 김방경, 김주정, 박구, 박지량, 형만호 등이 일본병과 싸워 300 여 명의 목을 베었다. 일본군이 돌진하자 관군이 무너지고 홍다구가 말을 버리고 달아나거늘, 왕만호가 다시 가로질러 50 여 명을 쳐 죽이자 일본군은 물러가고 겨우 홍다구를 구할 수 있었다. 그 다음날, 다시 싸워 패적하고 군중에 또 크게 전염병이 돌아 사망자가 무려 3000 여 명에 달했다. 따라서 혼도, 홍다구 등이 여러 번 싸웠지만 불리한 처지에 놓였

^① 《고려사》 권 104 《김방경전》

고 또 범문호가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자 군사를 돌이켜 철수할 것을 의논하기를 “성지를 받들고 3 개월 분량의 식량을 가지고 왔으나 이제 한달 식량이 남았으니 남군(南軍)이 오기를 기다려 합공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니 제군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얼마 후에 범문호가 1 만 군을 거느리고 도착하니 배가 무려 9000 척이었다. 8 월에 태풍을 만나 아군 1 만 여명이 익사해 시체가 파도를 따라 포구에 밀려들었다. 아군은 드디어 군사를 철수하기로 했다.

(七年三月，出师东征。方庆先到义安军阅兵仗王至合浦，大阅诸军。方庆与忻都、茶丘、朴球、金周鼎等发，至日本世界村大明浦，使通事金贮檄谕之。周鼎先与倭交锋，诸军皆下与战，郎将康彦(康师子)等死之。六月，方庆、周鼎、球、朴之亮、荆万户等与日本兵合战，斩三百余级。日本兵突进，官军溃，茶丘弃马走，王万户复横击之，斩五十余级，日本兵乃退，茶丘仅免。翼日复战，败绩。军中又大疫，死者凡三千余人。忻都、茶丘等以累战不利，且范文虎过期不至，议回军，曰：圣旨令江南军与东路军必及，是月望会一歧岛，今南军不至，我军先到数战，船腐粮尽，其将奈何？方庆默然。旬余，又议如初。方庆曰：奉圣旨，费三月粮，今一月粮尚在，俟南军来合攻，必灭之。诸将不敢复言。既而，文虎以蛮军十余万至，船凡九千艘。八月，值大风，蛮军皆溺死，尸随潮汐入浦，浦为之塞，可践而行。遂还军。)①

상술한 2 개 사료는 일본원정의 또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이는 《고려사》에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버전이며 《충렬왕사》의 서술보다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록했다. 이 사료는 김방경이 용맹함과 공로를 기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김방경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앞서도 말했듯이 김방경은 고려의 명장이며 명문가 출신이자 눈부신 공훈을 세운 역사인물이다. 일본원정에서 보다시피 김방경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장군임에 틀림없다.

둘째, 사료에서 보다시피 김방경은 이번 전쟁의 승패를 주도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1 차 정벌 때 그는 신호용 화살 하나를 뽑아 들고 크게 외치자 왜군은 도망갔으며……왜군은 크게 패배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심지어 몽골 총수도 김방경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쟁에서 유리한 입지에 처했을 때 그는 계속해서 추격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것을 권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폭풍우로 인해 전함이 침몰해 크게 패배했다. 2 차 정벌에서도 김방경이 거느린 고려군이 300 여 명의 목을 베는 등 첫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몽골군은 패배를 거듭했으며 홍다구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며 태풍을 만나 만군은 모두 익사했다. 전쟁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며 또 이러한 비교를 통해 김방경의 공로를 두드러

① 《고려사》 권 104 《김방경전》

지게 반영했다.

셋째, 《고려사》의 기타 사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료 역시 전쟁터에서의 고려군의 활약을 기록한 것이므로 과장된 표현과 거짓표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사료의 편파적인 서술을 벗어나 분석하면 이 전쟁은 원나라가 발동했으며 고려는 어쩔 수 없이 동참했으므로 전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며 전쟁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주도자가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고려사》의 일부 내용은 과장된 부분과 거짓 내용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방경과 기타 장군의 대화가 바로 그렇다. 조선의 사관들은 이러한 대화를 들었을 리가 없을 뿐더러 설령 고려의 역사자료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대화내용까지 세세하게 적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적절한 선에서 구상해낸 것으로 보이며 김방경의 중요성과 공로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사》에는 여기 저기에서 이러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려사》의 인물 판정 기준은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다. 고려를 배반하고 원나라 편을 들어준 자들은 모두 “반인”으로 찍혀 《반역전》에 수록했다. 조이, 홍복원이 가장 대표적이다. 김방경은 동정전쟁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고려 장군이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전기는 김방경을 중심으로 대화를 통해 일본원정을 보다 생생하게 엮었으며 김방경을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는 핵심인물이라고 기록한데 반해, 몽골 장교들은 이번 전쟁이 실패하게 된 주된 원인이며 일본원정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록했다.

4. 맺는 말

조선 관찬사서 《고려사》의 《충렬왕세가》와 《김방경전》에는 일본원정에 대해 2개 버전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취지는 다르지 않으며 모두 전쟁에 대한 고려와 고려 장병들의 공로를 반영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고려는 이번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관건이며 전쟁의 패배 원인은 몽골 장병들의 독단적이고 거만한 태도로 인한 것이며 결국에는 태풍으로 인해 대패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프랑스 역사학자 미셸 드 세르토에 의하면 관찬 사서는 국가의 이성애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즉 “기존 자료에 근거해 특수한 방식으로 일부 환경 속의 여러 요소를 편집함으로써 보다 논리적인 서술을 진행한다.”^① 그러므로 이 버전은 조선왕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명나라의 관찬 사서인 《원사》와 일본의 관련 사서와 큰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만약 《고려사》와 《원사》를 대조한다면 아마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방경에 대한 홍다구의 무함사건 등이 그렇다. 《고려사》에는 김방경이

^① (프)미셸 드 세르토 : 《역사편찬》, 니푸성. 번역, 베이징 : 중국인민대학교출판사, 2012년, 제 11 페이지

공로를 포상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 당파의 배척을 당해 반역을 꾀한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이에 고려에 원한을 품고 있던 홍다구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정서성에 김방경에 대한 고문을 주장한다.^① 홍다구는 온갖 수단을 이용해 김방경을 괴롭혔으며 쿠빌라이가 이 일에 관여하고 나서야 김방경의 누명을 벗겨주었다. 그러나 《원사·고려전》에는 “14 년 정월, 김방경 등은 반역을 꾀했으며 혼도, 홍다구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대응했다. (十四年正月, 金方庆等为乱, 命愷治之, 仍命忻都、홍다구飭兵御备).”^② 이 사서에서는 김방경을 반역자라고 기록했지만 《고려사》에는 홍다구가 김방경을 무함했다고 기록해 완전히 다른 입장을 서술했다. 《고려사》와 《원사》는 많은 사건을 서술함에 있어서 내용이 아주 다른데 김방경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이다. 《고려사》속의 김방경은 핵심인물로 기록되었지만, 《원사》에는 반역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기록했다. 홍복원에 대해서도 《원사》에는 공신(功臣)이라고 기록했으나 《고려사》에는 《반역전》에 수록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동아시아 3 국의 중요한 역사 사건을 이해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 개 국가의 입장과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③ 진인각(陈寅恪)의 명언대로 “타국의 고서와 자국의 사서를 상호 보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④ 중요한 것은 국가, 민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1 개 국가가 아닌 전반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진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① 《고려사》 권 104 《김방경전》

② 《원사》 권 208 《외이—고려》, 제 4620 페이지. 베이징: 중화서국(書局), 1976 년

③ 갈조광(葛兆光)은 “1 국사”와 “동아시아역사”사이에서 : 13—16 세기의 동아시아의 3 개 역사 사건을 예로 들어 (《중국문화연구》 2016 년 겨울 권)에서 말하기를 “만약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역사 사건을 단지 1 개 국가의 입장이나 시각으로만 접근한다면 반드시 ‘사각지대’나 ‘맹전’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므로 1 개 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④ 진인각 : 《왕정안선생의 유서서(王静安先生遗书序)》, 허관삼(许冠三)의 : 《신사학 90 년(新史学九十年)》 참고.(창사 : 위에리출판사, 2003 년), 제 83 페이지